

제3강 파워웨이브 양육체계

1. 방향성

-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 지키게 한다(마 28:20) ⇒ 제자양육
- 중고등학교를 변화시키는 영적운동을 펼쳐 나간다(대하 7:14) ⇒ 학교 선교

2. 전략

- 중고등부 전략 차별화 및 연속성(중1 - 중2, 3 - 고1, 2 - 고3)
- 지역교회와의 Network를 통한 연합 사역(Outreach 및 연합사역)
- 교회, 학부모, 교사의 삼각 지지를 통한 학생 사역의 다양화, 전문화

3. 구체적 양육 흐름과 내용

① 중1 단계

- 방향 : 꿈이 자라는 땅에서 파워웨이브로의 바뀌는 시기이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개인의 삶에서도 모든 것이 변화되는 시기적 특징을 가진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며, 파워웨이브 비전의 첫 준비를 한다.
- 목표 : 구원의 확신 / 성령의 경험 / 예배의 감동 경험
- 양육 방안
 - 예배 : 재미있는 예배, 역동성 있는 예배, 참여하는 예배
 - 소그룹 : 설교와 이어지는 소그룹 나눔
 - 스쿨 : QT 스쿨, 구원 스쿨
 - Camp : 예배의 감동과 성령의 체험

② 중2, 3 단계

- 방향 : 학생들이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도록 가르치고, 전도와 학교 선교에의 걸음을 시작하게 한다.
- 목표 : 구원의 확신, 성령님의 임재, 참된 예배의 경험을 심화한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에 집중한다.
학생 리더십을 세우고 핵심 멤버들이 주체적으로 부서에 참여하도록 한다.
- 양육 방안
 - 예배 : 기획예배, 참여하는 예배, 감동의 예배
 - 소그룹 : 다선형 교육과정(Hyer-text)도입
(중심 - 말씀을 잘 배우고, 스스로 묵상하며 적용할 수 있게 한다.)
 - 스쿨 : QT 스쿨, 제자학교(YDTS), 리더십 학교
 - Camp : 여름 Outreach를 중심한 진행과 겨울 Passion 참여

③ 고1, 2 단계

- 방향 : QT 등의 습관화와 기독교적 가치관을 정립하며, 각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기도모임을 세우거나 참여하게 돕는다.

- 목표 : 학교별 중보기도모임을 활성화시킨다.
중보기도 및 전도훈련을 통해 학교 중보기도모임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학생 리더십 모임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며, 예배와 사역에 참여하게 한다.
- 양육 방안
예배 : 기획된 예배, 참여하는 예배, 감동있는 예배
소그룹 : 다선형 교육과정(Hyper-text) 도입
(중심 -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구체화를 강화한다.)
스쿨 : 다선형 교육과정 내에서 스쿨형으로 강화 진행시킨다.
Camp : 여름 Outreach형 - 소그룹모임의 연합형태(4-5개의 그룹으로 Outreach 진행)
겨울 - Passion 참여

④ 고3 단계

- 방향 : 대학생 내지 사회인이라는 문턱에서 바른 세계관을 정립시키고, 건강한 크리스천으로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단계이다.
- 목표 : 성숙한 신앙생활의 정립, 바른 세계관의 정립, 진로에 대한 바른 결정을 위한 도움, 사랑의 멘토로서의 역할
- 양육 방안
소그룹 편성: 학년 내에서 편성, 교사와 학생들이 같은 기도와 마음을 갖고 돕게 한다.
세미나의 개최 : 진로 상담이나 간증, 육체적, 정신적 필요를 돕기 위한 세미나 개최.
학부모 사역 : 학부모를 위한 세미나의 필요(입학관련, 학교생활관련), 함께 기도의 방향을 나누고 참여하게 한다.
Camp : 여름 Outreach와 겨울 Passion 참여
(겨울 Passion의 경우 지원자가 아니라 봉사자로 참여하게 한다.)

4. 다선형 교육 과정에 대해(Hyper-text)

1) 교육에 대한 개념

- ① 교수(Teaching) 중심, 교사 중심, 전달 중심
 - 객관주의, 교사를 기술자로 보는 관점, 공장의 공산품 : 전통적인 산업화 사회
- ② 학습(Learning) 중심, 학생 중심, 깨달음 중심
 - 구성주의, 교사를 정원사로 보는 관점, 정원의 화초 : 정보화 사회

2) 다선형 교회교육과정의 필요성

- ① 교수 중심에서 학습 중심 교육의 이동(참고: 7차 교육과정)
- ② 개인차를 고려 교육의 필요
 - 발달단계
 - 신앙수준
 - 장래의 비전
- ③ 신앙과 행동의 일치된 삶-선택과 책임이 만나는 교육

3) 하이퍼텍스트형태를 활용한 다선형 교회교육과정의 실제

객관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구성주의의 단점을 피하는 구조- 전체 교육과정을 구성주의를 활용하여 다선형으로 구성하되, 각 노드들은 객관주의의 목표중심을 활용하여 체계적 교수설계를 사용.

4) 장점과 단점

① 하이퍼텍스트의 장점

-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이 가능하다.
- 학습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다.
- 학습자의 지식 형성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해 준다.

② 하이퍼텍스트의 단점 -

- 방향상실이 나타날 수 있다.
- 선택적 상황에서 인지적 과부하가 걸린 가능성이 있다.
- 집중력이 떨어져 주의산만이 나타날 수 있다.
- 학습의욕이 없을 경우 목적 없는 행태로 말미암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 중요한 정보가 소실될 수 있다.

③ 하이퍼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보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

- 전체적인 인지적 지도(구조도, map)를 제공
- 어느 정도 위계화 함으로써 지식의 통합을 돕는다.
- 컴퓨터 환경과는 달리 교사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교사가 상담을 통하여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5) 파워웨이브 시행 방안

- 먼저 소그룹을 몇 개 합쳐서 팀 단위로 만든다. 팀의 명칭을 스쿨이라고 한다. 한 개의 스쿨을 노드로 하고 그 스쿨들을 하이퍼텍스트 정신에 맞게 비선형적으로 링크시킨다. 그리고 교사들이 도움을 준다. 교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상담을 하면서 전체 구조도 등을 제공하여 선택을 돕고, 격려하면서 과정을 이수해 가도록 한다.

- 코너학습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열린 학교의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이 원하는 코너에서 해당 수업의 내용이 담긴, 자신이 즐겨하는 학습을 순환하면서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코너학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코너학습을 팀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스쿨 단위 시간 내의 한 시간에는 코너학습을 하지 않지만 한 개의 스쿨 단위를 한 단위의 코너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코너 학습이 끝나면 다른 코너로 이동한다. 물론 개인에 따라 다음번의 코너는 모두 다를 수 있다.

- 1년을 4개 학기로 나누어서 3개월마다 각각 새로운 스쿨을 하는 방안이다.
- 1년을 2개 학기로 나누어서 6개월마다 각각 새로운 스쿨을 하는 방안이다.
- 1년에 2학기제를 운영하면서 한 스쿨 6개월 기간을 둘로 나누는 것이다.

6) 결론 : 교회교육 과정에 도입하면서

① 기대되는 장점

- 개인차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개인차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과정은 생리적 발달, 신앙적 발달, 개인의 비전의 차이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여러 학교를 선택하며 옮겨 다니며 다양하면서도 계열화된 교육내용과 자신의 비전에 적합한 교육을 받게 된다.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비전에 따른 선택을 제공하므로 그로 말미암은 참여자들의 태도가 짜여진 계열을 따라가는 경우에서보다 더 적극적이게 된다. 또한 부가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과정에서 헌신을 요구할 수가 있고, 가르치는 자의 권위에 대한 순종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
-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진다. 한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같은 학교를 섬기다 보면 반복학습으로 인한 수업의 전문성이 신장되게 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고민과 질문들에 대하여 더욱 전문적이 될 공산이 커지는 것이다. 처음 받는 질문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번 같은 스쿨을 진행 할 때는 비슷한 연령대의 학생들이므로 비슷한 고민과 질문들이 반복될 것이고, 이전에 겪었던 질문인지라 교사는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더 나은 대답과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이해하며 나름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 비유해 보면 한 교사가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학교의 형태라기보다는 전문화된 자신의 전공을 가르치는 중등학교 교사의 형태를 가지므로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성이 신장되는 것이다.
- 사역자들의 다양한 은사를 활용할 수가 있다. 즉 사역자들 간에 바람직한 팀 사역의 효과가 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라는 개념을 뛰어 넘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과정이 진행되게 하기 위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교사가 모두 가르치는 사역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다과를 준비하고, 출석부를 정돈하고, 생활 기록부를 기재하고, 모임 장소를 준비하는 등의 사역을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은사가 있는데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한 죄책감을 갖지 않고 함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다.
- 전도 등을 통하여 새롭게 전입한 학생들의 빠른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이퍼텍스트 환경의 학습에는 계열을 결정하는 단일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선택하는 경로를 통해 지식을 조직해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작과 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하이퍼텍스트 체제에서 학습자는 어떠한 위치에서도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자율권이 주어진다.

② 문제점

- 장소 사용의 제약이 따른다. 동시다발적으로 스쿨이 운영되려면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한국 교회에 교육기관에 그만한 시설 투자가 어려운 형편이다.

- 학생들의 시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현 입시체계의 제도에서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주일날 한번 모이면서, 예배 시간과 그 후의 시간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을 바르게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교사들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단점, 즉 장소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학생, 교사의 시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스쿨을 구성하지 않고 현행 소그룹 시간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도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선의 대책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행대로 분반공부라고 부르는 소그룹 시간에 몇 개의 소그룹 사역자들을 묶어서 함께 한 스쿨에 관한 연구를 한 후에 자신의 소그룹에서 그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현재의 시설·시간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지 팀 사역이 어려우므로 한 스쿨의 내용을 소그룹 담당 교사가 모두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년을 계속 진행하는 현재의 소그룹 형태보다는 한 교사가 학습하는 내용은 더 적은 장점은 있다. 그리고 졸업생들을 행정적인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교육하여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소극적인 학생들은 참여가 어려울 수가 있다. 이 경우에 교사들의 적극적인 권면이 필요하다. 하이퍼텍스트 방식이지만 따뜻한 피를 가진 교사가 곁에서 길안내를 맡아줄 경우에는 이 단점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될 때, 소규모만이 선택함으로 인해서 폐강되는 스쿨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점의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사를 위해서 교육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부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쉬운 것, 흥미위주의 것으로 선택이 치우칠 수가 있으므로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자신의 진로와 비전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거나, 담당 교사의 유인효과가 적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보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